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전화 PSPD, 나무: 참여연대 / 찬반만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 pspd@nownuri.net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담당: 김기식 정책실장, 홍석인 간사: 723-5051)
 제 목 공정위는 재벌비호 기관인가. 공정위의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날 짜 1999. 9. 3. (총 2 쪽)

보 도 자 료

공정위는 재벌비호 기관인가, 공정위의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 LG의 데이콤 주식 위장보유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발표 관련 참여연대 성명 -

1.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일 LG그룹이 친인척회사 및 협력회사를 동원하여 데이콤의 주식을 위장보유한 의혹에 대해 제3추적권을 동원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무려 3개월이 지나 데이콤 주식을 보유한 회사 중 위장계열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결국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다.
2. 그러나 이번 공정위 조사발표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 즉 LG그룹이 친인척회사 및 협력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데이콤 주식을 위장보유했는가 라는 실체적 내용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공정위는 '시장질서 수호'라는 그 자신의 존립목적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민적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에도 역행하는 반개혁적 자세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재벌비호 기관인가?
3. 한편,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여부 조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조사대상 28개사 중 15개 친인척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친족분리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라호에는 분명히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계열회사와 친족 분리회사 사이에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 스스로가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듯이, 18개 친인척회사 중 10개사가 LG종금으로부터 21차례 자금차입을 했고, 그중 19차례는 자금차입시점과 데이콤 주식 매입시점이 정확

히 일치했으며 차입규모도 주식매입가액에 근접했다.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원 계열회사와 친족분리회사 사이의 비정상적인 자금대차가 아닌가? 자기자본의 1.0배에서 18.3배에 이르는 데이콤 주식을 매입하면서 그 자금을 원 계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정상적 자금대차라면 도대체 비정상적 자금대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둘째, 6개의 협력사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정위는 LG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다는 것만으로는 위장계열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 5개사가 LG종금으로부터 10차례 자금차입을 했고, 10차례 모두 시점과 규모에서 일치했다. 또한 이들 회사의 일부는 대주주가 바로 구씨·허씨 등 친인척이다. 이것이 위장계열사가 아닌가?

4. 참여연대는 LG그룹의 데이콤 주식 위장분산 의혹과 관련된 실체적 내용을 밝힐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한다. 물론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조사도 공정위에 요구할 것이다. 공정위는 환골탈태해서 재벌개혁의 주체로 그리고 시장질서의 수호자로 거듭날 것을 재촉한다.

5.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한계는 제도적 미비점에도 기인한다. 즉 현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발동은 계열사들 사이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한정된다. 그 결과 이번 위장분산 의혹의 경우 공정위는 일차적으로 친인척회사 및 협력회사에 대해 위장계열사 여부를 먼저 조사를 했고, 결국 계좌추적권 없는 상황에서 실체적 내용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제시한 바와 같이,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부당 내부거래가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에 부여되어 있는 계좌추적권의 발동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시한도 연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도 공정위는 스스로 적극 나서야 한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천리안.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